



고창 정보화농업연구회, 스마트경영 혁신 '호평'

고창군 정보화농업연구회(회장 오세훈)가 2026년 전북 농업인 스마트경영 혁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지역 농업 경쟁력 향상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최우수상을 차지한 고봉주(대산면)씨는 '버려지는 농업부 산물을 활용한 미생물 적용 사례'를 싹솜 콘텐츠로 제작했다. 해당 콘텐츠는 자원순환형 농업과 친환경 기술 활용이라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김난습(상하면)씨는 'AI 비서로 5명 목을 해낸 스마트 농업경영'을 주제로 AI를 활용한 농업 경영 및 정보 활용 사례를 발표했다. 대회는 전북 14개 시·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와 역량과 디지털 활용 능력을 평가하며 매년 치열한 경연을 통해 우수 농업인을 선발하고 있다. 특히 고창군은 정보화 교육을 통해 AI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 최우수상 수상자는 전북 대표로 선발되어 중앙 단위 정보화농업 경진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 정기회의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최근 교육청 3층 정책 협의실에서 2026년 고창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회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처음 구성된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복잡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교육장을 비롯해 당연직·위촉직 위원과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계획(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와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 첫 회의를 통해 학교 인력의 전문인들이 경계를 넘어 협력함으로써, 학교 단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복합적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통합지원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고창교육지원청은 이번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컨트롤러 역할 분담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고, 심의·의결된 추진계획에 따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학생 성장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향나들이 지원 다문화가족 대상 프로그램 진행

남원시 가족센터는 최근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에 선정된 다문화가족 20명을 대상으로 다름ON, 함께 Go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향나들이 지원 사업설명회와 부부 의사소통 교육으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모국 방문을 앞둔 다문화 부부가 함께 참여해 언어와 문화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가족 간 소통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프로그램에서는 △부부 의사소통 교육 △대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단위 문화체험 등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이 상호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AI·SW 교육으로 지역을 잇다

전북대, 2026 JBNU 교육봉사단 발대식 50명 학생 참여... 디지털 격차 해소 본격화

전북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단장 김성찬)과 전신 총학생회(총학생회장 류이노)는 4월 24일 오전 11시 교내 학생터운 4층 민주강당에서 2026 JBNU AI·SW 교육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 대상 AI·SW 교육봉사 활동의 본격적인 출발을 일렷다. 전북대 학생 5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앞으로 전북 지역 경로당 보육원 소외된 초·중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AI·SW 교육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전북대 SW중심대학사업단 객원태 부단장을 비롯해 JBNU지역발전연구원 김도우 부원장, 디지털혁신교육진흥원 유철중 이사장, 미래로 AGI 박혜자 이사,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이희경 평생교육부장 등 주요 내빈이 참석해 앞으로 활동 지원에 뜻을 같이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50명의 봉사단원에게 임명장이 수여됐고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사회와 연계한 AI·SW 교육의 중요성과 기대 효과를 공유했다. /김재훈 기자



김성찬 전북대 SW중심대학사업단장은 "이번 교육봉사단 활동은 단순한 재능기부를 넘어 지역사회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AI·SW 교육의 저변 확대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 JBNU AI·SW 교육봉사단은 향후 전북 지역 내 다양한 교육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AI·SW 체험 및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말 성과공유회를 통해 활동 성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 동충동·남원사회복지관 '맞손'

남원시 동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미리)는 최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활성화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남원사회복지관(관장 강정아)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기존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 협약을 한층 확대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활성화를 포함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식에는 동충동 관할 생활지원사 10명이 함께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로 사정을 공유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어르신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과 부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생활지원사들의 노고에 재조명되며,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노인맞춤돌봄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고독사 및 취약계층 위기가구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와의 신속한 연계를 통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통합돌봄 기반의 복지인프라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얕으면 죽산, 서면 백산' ... 부안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30일 부안 백산성지 등서 개최

부안군이 주최하고 (사)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배의명)가 주관하는 제32주년 부안 동학농민혁명 백산대회 기념행사를 부안 백산성지 및 백산다목적체육센터 일원에서 오는 30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안 동학농민혁명은 당시 수많은 민중이 희생을 입고 죽창을 든 채 산을 매워 '얕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역사적 장관을 연출했다. 백산대회는 동학농민군이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혁명의 대의를 밝힌 격문 4대 명의, 군율을 선포한 대규모 군중집회로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로 손꼽힌다. 특히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천도교 중앙총부를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기릴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또한 한국미술협회 부안지부 회원들의 동학 주제 예술 작품 전시와 함께 백산중학교 학생들의 창의활동 결과물을 담은 특별전시마 마련돼 세대를 잇는 공감의 장이 펼쳐진다.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132년 전 갑오농민들이 품었던 숭고한 정신은 우리 가슴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며 "백산대회의 정신이 다음 세대에도 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의 맛·멋 여기서... 도, 익산역서 우수상품 직거래 장터 개장

24일부터 8개월 동안 운영... 200여 품목 선봬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11월까지 익산역 광장에서 전북 특별자치도 우수상품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고 도내 기업 판로 확대에 나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날부터 본격 운영되는 이번 장터는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익산역 광장에 약 140㎡ 규모로 조성돼 운영된다.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주말과 공휴일에도 휴무 없이 상시 운영된다. 특히 전담 매니저 등 2명의 인력이 상주해 상품 홍보와 판매를 지원한다. 장터에는 우수상품 지정기업 50여 개사와 지역 우수기업 20여 개사 등 총 70여 개 기업이 참여한다. 농·축·수산물과 정통·가공식품, 공산품 등 전북을 대표하는 약 200여 개 품목이 판매되며, 익산역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다양한 지역 상품을 한자리에서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농축수산물 6개, 정통·가공식품 24개, 공산품 7개 등 총 7개 품목을 우수상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오프라인 장터와 함께 온라인 프로모션과 국내 박람회 지원 등도 병행하고 있다. 도는 행사 기간 월별 매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해 참여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0만호 기자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A식품기업 대표는 "익산역은 타지역 방문객이 많아 신규 고객층 확보에 최적의 장소"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 기업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직거래장터는 도민과 방문객들이 전북 우수상품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0만호 기자

부안 진서면민의 날 화합한마당 성료

부안군 진서면은 제16회 진서면민의 날 화합한마당이 지난 24일 품소 다용도부지 야외무대에서 성황리 개최됐다고 밝혔다. 진서면 체육회(회장 박영우)가 주관하며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과 각계각층의 내빈, 면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화합과 소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진서면 농악단, 난타공연 등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과 장학금 기탁으로 전일콘서트 전담일 대표가 1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에는 동서산업 정재자 대표와 품소금빛스금 배중수 대표가 각각 100만원을 기탁해 뜻깊은 의미를 더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신한파트너스, 무주서 지역상생 워크숍

신한파트너스(대표 김장남)는 지난 25일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전 임직원 200여 명이 참여한 '쓰담(쓰레기 담기) 캠페인과 지역상생 워크숍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전주NFS본부 개소와 함께 전북혁신도시에 상주 중인 50여명의 임직원을 비롯해 서울 본사 전 임직원이 함께한 자리로, 지난해 전주에 이어 무주까지 2년 연속 전북을 찾아 1박2일간 진행했다. 임직원들은 무주의 청정 자연을 배경으로 전북 삼천리길 구간을 함께 걸으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자연친화 활동을 펼쳤고, 이후 지역 내 숙박·식음·구매 등 다양한 소비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지역상생 워크숍으로 이어졌다. 김장남 신한파트너스 대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2년 연속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전북이 신한파트너스의 진정한 상생 파트너이기 때문"이라며 "탄소중립 실천과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이라는 여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월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식을 개최하고 자본시장·자문운용 관련 주요 기능을 전북으로 집중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 현재 전주 지역에 근무하는 130여명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300여명까지 확대해 자본시장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0만호 기자

새만금공,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서 봉사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 이하 공사)는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위치한 군산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공사가 처음으로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공사는 그동안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번 유기동물 보호 봉사활동을 계기로 사회공헌 분야를 보다 다각화할 계획이다. 공사 임직원은 기꺼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 견사 청소, 동물용품 정리 등 유기동물 생활환경 개선 작업을 시행했으며, 산책 보조 등 유기견·유기묘와 교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0만호 기자



남원 아꿈부모회 등, 국수나눔 잔치 열어

남원시 아영면은 4월 24일, 관내 아꿈부모회(아이들의 꿈을 지지하는 부모 모임)가 아영면 여성들의 행복나눔센터에서 국수나눔 잔치와 소소한 장터를 열었다고 전했다. 국수나눔 잔치는 12년 전 원불교 천계교당이 아영면 지역 어르신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지역민과 함께 따뜻한 국수 한 그릇 나누어 먹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행사로, 현재는 아꿈부모회가 이를 이어받아 해마다 진행, 올해 제8회째를 맞고 있다. 아꿈부모회 윤석우 회장은 "이 나들이 아이들에게는 배려와 희망을 배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꿈을 지지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